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계획 발표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일정과 주제, 참여 작가 발표
-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최
- ‘도피주의와 맺는 새로운 관계’를 주제로 국내외 작가 41명/팀 참여, 절반 이상이 신작 선보여
- 사전 프로그램으로 비엔날레 준비 과정이 담긴 온라인 토크를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목요일 공개
-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대화와 참여로 비엔날레의 미래 모색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개최 일정을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확정하고, 국내외 총 41명/팀의 참여자 명단을 공개했다. 나아가 사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월 29일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비엔날레 준비 과정을 온라인 토크로 공개할 계획이다.
- 예술감독 융 마(Yung Ma)의 지휘 하에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제11회 서울 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오늘날 대중미디어에 나타나는 현실 도피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한다. ‘도피주의와 맺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비엔날레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새롭게 상상해 보길 제안하고, 나아가 파편화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좌표를 찾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비엔날레 기획 초기에 참조한 사례 중 하나는 〈원 데이 앳 어 타임(One Day at a Time)〉(2017~)으로, 1970년대 동명의 드라마를 재해석해 넷플릭스(Netflix)에서 제작한 미국 시트콤 시리즈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시트콤 형식을 취하면서도 원작의 백인 가족을 쿠바계 미국인 가족으로 바꾸어 일반적인 미디어 재현의 문법을 뒤집고, 웃음과 개그의 이면에서 인종, 젠더, 계급, 성적체성, 이민, 재개발, 폭력 등 동시대의 화두를 적극적으로 돌파한다. 이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이와 같이 현실 도피의 형식을 활용해 역으로 첨예한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거나 때로는 대항하는 대중미디어의 전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 참여 작가 총 41명/팀 중에 국내 작가는 10명, 해외 작가는 31명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참여한다. 미술 작가뿐만 아니라 음악가(림기웅[Lim Giong], 아마츄어 증폭기), 예술공간(취미가, 합정지구, ONEROOM) 등을 참여자로 초청해 예술을 실천하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폭넓게 아우르는 장을 제시한다. 또 류한솔, 정금형, 홍진훤, 아이사 흑슨(Eisa Jocson), 유리 패티슨(Yuri Pattison),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Pauline Boudry / Renate Lorenz) 등 절반 이상의 참여자가 출품을 위해 신작을 제작하여 비엔날레의 참신성을 높인다.

- 서울시를 대표하는 행사이자 국제적인 미술 행사로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팬데믹 시대의 심리적, 물리적 한계를 넘어 도시와 교류하는 다채로운 시도를 펼쳐 보인다. 특히 전시와 더불어 대중미디어의 유통망을 참조하는 전방위적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협업, 도시의 다양한 공공장소로 개입 등, 영역을 확장하며 서울시 전역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비엔날레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다. 비엔날레 참여자의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웹사이트는 이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서 가능하며, 2021년 봄에 공개 예정이다.

- 개최 기간이 변경된 만큼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제11회 서울 미디어시티비엔날레 준비 과정의 면면을 공유하여 비엔날레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이 사전 프로그램은 10월 29일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토크 시리즈로, 매주 목요일 한 편씩 비엔날레 홈페이지(mediacityseoul.kr)와 유튜브 채널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에 공개되며 올해 연말까지 제공된다.

- 사전 프로그램은 비엔날레 참여자 고등어, 장영혜중공업, 합정지구,

헨리케 나우만(Henrike Naumann)을 비롯해 그래픽 디자이너 박선영(디자인 스튜디오 파크-랭거, Park-Langer), 작가 정연두가 비엔날레 팀원과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다.

- 백지숙 관장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의 역동적인 문화와 정신을 반영해왔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이러한 전통은 참여자들의 창의성과 시너지 효과를 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예술의 역할을 회복하는 비엔날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엔날레 참여자, 비엔날레팀, 미술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관람객들이 안전한 관람 환경에서 더 풍성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홈페이지(mediacityseoul.kr)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sema.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 ☎ 02-2124-8800).

비엔날레 개요

- 제 목: [국문]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영문]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One Escape at a Time*
- 기 간: 2021년 9월 8일 - 11월 21일
- 예술감독: 융 마(Yung Ma, 前 파리 풍피두센터 큐레이터)
- 참 여 자: [총 41명/팀] 강상우, 고등어, 김민,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 (에이미 램, 존 맥컬리)[Life of a Craphead (Amy Lam and John McCurley)], 류한솔, 리랴오(Li Liao), 리우추앙(Liu Chuang), 리처드 벨(Richard Bell), 림기웅(Lim Giong), 무니라 알 카디리(Monira Al Qadiri), 미네르바 쿠에바스(Minerva Cuevas), 밍 웡(Ming Wong), 바니 아비디(Bani Abidi), 브리스 델스페제(Brice Dellsperger), 사라 라이(Sarah Lai), 샤론 헤이즈(Sharon Hayes), 쉬쩌위(Hsu Che-Yu), 씨씨 우(Cici Wu), 아마츄어 증폭기, 아이사 흑슨(Eisa Jocson), 야마시로 치카코(Chikako Yamashiro), 올리버 라릭(Oliver Laric), 왕하이양(Wang Haiyang), 요한나 빌링(Johanna Billing), 유리 패티슨(Yuri Pattison), 장영혜중공업, 장윤한(Chang Yun-Han), 정금형, 취미가×웍스, 치호이(Chihoi), 탈라 마다니(Tala Madani), 토비아스 칠로니(Tobias Zielony), 폴 파이퍼(Paul Pfeiffer),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Pauline Boudry / Renate Lorenz), 필비 타칼라(Pilvi Takala), 하오징반(Hao Jingban), 합정지구, 헨리케 나우만(Henrike Naumann), 홍진훤, DIS, ONEROOM
- 행사소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동시대 미술 행사로서 미술, 미디어, 도시 사이의 연결 고리를 새롭게 모색하는 비엔날레이다. 2000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국내 예술 활동을 해외에 알리며 국제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예술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확장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사전 프로그램 개요

- 내용: 비엔날레 참여자와 협업자가 비엔날레 팀원과 대화 형식으로 비엔날레 준비 과정을 공유하는 온라인 토크 시리즈
- 기간: 2020년 10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6주간, 매주 목요일 한 편씩 공개 (2020년 말일까지 제공)
- 장소: 비엔날레 웹사이트(mediacityseoul.kr) 및 비엔날레 유튜브 채널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 세부 일정

연번	날짜	참여자
1	10월 29일 (목)	합정지구(예술공간, 비엔날레 참여자) 진행: 유지원(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2	11월 5일 (목)	정연두(작가, 성균관대학교 교수) 진행: 장해림(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3	11월 12일 (목)	헨리케 나우만(작가, 비엔날레 참여자) 진행: 융 마(비엔날레 예술감독)
4	11월 19일 (목)	박선영(그래픽 디자이너, 디자인 스튜디오 파크-랭거) 진행: 송주연(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5	11월 26일 (목)	고등어(작가, 비엔날레 참여자) 진행: 허미석(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6	12월 3일 (목)	장영혜(중공업(작가, 비엔날레 참여자)

※ 별첨

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디자인 아이덴티티 1부
2. 대표 참여자 소개
3. 대표 참여자 작품 이미지 5부

문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고원석 (w.koh@seoul.go.kr / 02-2124-8931)

교육홍보과장 송은숙 (ses0031@seoul.go.kr / 02-2124-8912)

큐레이터 이지원 (press@mediacityseoul.kr / 02-2124-8976)

홍보담당 장세희 (sayy0506@seoul.go.kr / 02-2124-8926)

관련 이미지 다운로드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내리기전용] 폴더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보도자료]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계획 발표